‘부활 선언’ 이창호 몸 덜 풀렸나

한국바둑리그 1라운드, 강동석에 맥없이 무너져

광주팀, 박정상·조훈현 선전 불구 울산에 2-3 敗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적중했다.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 1라운드에서 광주 Kixx 등 8개 팀이 팽팽한 전력을 보이며 명승부를 펼쳤다.

광주는 울산 디아채에 2-3으로 패했다. 믿었던 송태곤 8단, 이창호 9단이 1, 2경기를 내리 내줘 출발부터 불안했다.

광주의 백성호 감독은 지난 10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1라운드 울산과의 경기에 송태곤을 선봉으로 내세웠다. 울산이 이상훈 6단을 첫 주자로 내보낼 것으로 예상돼 천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송태곤이 나선 것이다. 송태곤은 그동안 이상훈과 4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했었다. 하지만 첫판부터 기를 꺾어놓겠다던 송태곤은 240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상훈에게 손을 들고 말았다.

올해 ‘확실한 부활’을 선언한 이창호 9단과 김대희 3단도 힘없이 무너졌다. 각각 울산의 강동윤 7단, 백홍석 6단에게 불계패 당했다.

그나마 박정상·조훈현 9단이 선전하며 리그 활약을 예고한 게 위안이었다. 11일 계속된 경기에서 박정상과 조훈현은 각각 울산의 최원용 5단, 김기용 4단에게 불계승을 따냈다. 3패 뒤에 건진 연승이었다.

12~13일 계속된 경기에서는 이북5도 티브로드가 대구 영남일보를 꺾었다. 이 경기도 종합전적 3-2까지 가는 접전이었다.

올해 팀 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경북 월드메르디앙(원성진, 한상훈, 유창혁, 배준희, 박승화, 박정환)과 충북 제일화재(이세돌, 최철한, 홍민표, 류동완, 김수장, 김승재) 2팀이 일단 우승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연소 멤버로 팀을 짜 2연패를 노리는 대구 영남일보와 사제지간인 조훈현, 이창호의 신구 조화가 돋보이는 광주 Kixx가 우승을 노리는 형국이다. 여기에 서울 신성건설도 만만치않은 전력이란 평가다.

올해 리그는 매주 2경기씩 열린다. 첫날 1·2국을 소화하고 2일째는 3, 4, 5국이 한꺼번에 열린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긴 ‘장고바둑’인 4국이 3국과 비슷한 시간에 시작, 모든 경기의 끝나는 시간을 맞췄다. 대국료는 승자 200만원, 패자 70만원. 우승 팀 상금은 2억7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만원이 늘었다.

순위는 팀 승률, 개인승수 합계, 승자승, 동률 팀 간 개인승수, 상위 지명자 다승 순으로 결정한다.

한편 광주는 26~27일 경기 한게임과 2라운 경기를 갖는다. 경기는 김성룡 9단, 이영구 7단, 홍성지 6단, 온소진 4단, 이현호 초단 등이 포진했다. 전력만 놓고 본다면 광주의 우세가 점쳐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세돌 1분기 상금 랭킹 1위

삼성화재배·LG배 우승 등 4억 5천여만원 챙겨

2위 한상훈 9천만원…여류기사 박지은 랭킹 5위에

절정의 기량으로 국내 바둑계를 평정하고 있는 이세돌 9단〈사진〉이 올해 1·4분기 상금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상금왕 이세돌은 매달 굵직한 대회를 휩쓸면서 차곡차곡 상금을 챙기고 있다. 1월 삼성화재배에서 우승하며 2억원을 벌었고, 2월에는 LG배에서 우승해 2억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3개월 동안 총 4억5천802만원을 손에 쥐었다. 이미 3개월만에 지난해 벌어들인 총상금 5억7천800만원의 79%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것이다.

이세돌의 이번 상금액은 역대 1·4분기 상금 수입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역대 1·4분기 상금 1~2위 기록은 이창호가 가지고 있다. 지난 2003년 1·4분기 도요타배, 춘란배, 농심배 등에서 우승하며 6억4천200만원을 받았고 2003년 같은기간에는 응씨배 우승 등으로 6억40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창호는 올해 1·4분기에 5천176만원을 벌어 4위에 그쳤다. 원익배 십단전 우승으로 3천500만원, 전자랜드배 백호왕전 우승으로 1천만원을 받았으나 3월에 1판밖에 두지 못하는 등 대국수가 적었던 것이 원인이다.

올해 1·4분기 상금 랭킹 2위는 한상훈 3단으로 9천287만원을 벌었다. LG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8천만원을 받았고, 전자랜드배 청룡왕전에서 우승(상금1천만원)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렸다. 3위는 박영훈 9단으로 7천744만원. 삼성화재배 준우승으로 5천만원, 맥심배에서 우승하며 2천500만원을 받았다.

여류 기사인 박지은 9단이 5위를 차지했다. 박지은은 원양부동산배, 여류국수전에서 우승한 상금 등으로 총 2천916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류기전을 제외하고 받은 대국료 및 상금은 273만원에 그쳐 대회별 심한 상금 편중현상을 보였다. 6위는 비씨카드배에서 우승한 김기용 4단으로 2천641만원을 벌었고, 7위는 1천957만원을 받은 루이나이웨이 9단이 올랐다.

초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승재가 비씨카드배에서 준우승하는 등 1천564만원을 받아 10위권에 진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바둑리그 광주 KIXX 선수단 서울, 광주, 대구 등 8개 지역 연고팀이 참가한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가 지난 10일 개막을 시작으로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개막 공식 행사에 참석한 ‘광주 Kixx’ 선수단 모습. 왼쪽부터 이창호 9단, 박정상 9단, 조훈현 9단, 김대희 3단, 이성재 8단, 송태곤 8단과 감독인 백성호 9단. 〈사이버 오로 제공〉

조치훈 無冠

日 십단전 타이틀 방어 실패

일본 최다 타이틀 보유 기록(71회)을 가지고 있는 조치훈 9단이 마지막 남은 타이틀을 지켜내지 못했다.

조치훈은 지난 3일 일본 나가노현 오마치시에서 벌어진 제46기 일본십단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다카오신지 9단에게 145수만에 불계패 당해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조치훈은 초반 포석에서부터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좌변을 내준 뒤 중앙 전투에서도 잇따라 패했다. 다카오신지의 두터운 세력에 막혀 후반에도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이로써 마지막 남은 타이틀마저 내준 조치훈은 일본 리그 무관으로 전락했다. 앞서 조치훈은 NHK배에도 장쉬 9단에게 패해 기성전까지 도합 3개의 타이틀 획득에 잇따라 실패했다.

조치훈의 침체로 일본 바둑계는 다카오신지, 장쉬, 야마시타 게이고 9단의 3파전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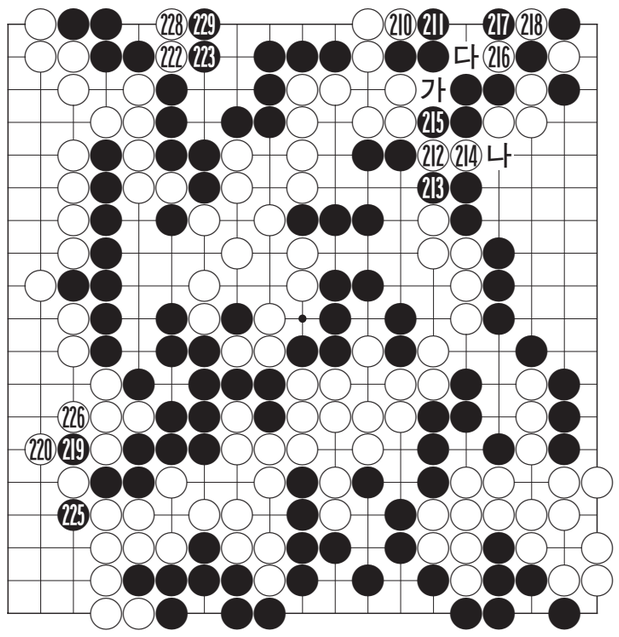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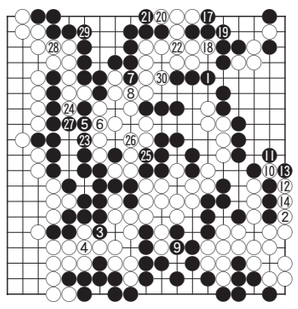
기우회 대항전

청천벽력 같은 덜컥수

12보(210~230)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희관 5단 (무석회)





〈참고도〉

수많은 격전과 공방을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반집승부가 예상되는 살얼음판의 형국이다. 그런데 허공에 떠다니는 반집을 찾아 헤메던 김희관 5단이 계가에만 몰두한 나머지 청천벽력같은 덜컥수를 두고 만다.

기용성 5단이 슬그머니 백 210으로 민 것이 함정을 판 수였다. 이때 김희관 5단은 무심코 211로 막고 말았는데 이 수가 천하의 덜컥수로 패착이 되고 말았다. 백 212로 젖혀가고 214로 쑥 들어간 수가 묘수로 결정타가 되었다.

흑은 215로 끊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백 216으로 끊어오자 속수무책이다. 흑이 한점을 따내면 백 ’가’, 흑 ’나’ 백 ’다’로 흑 석점이 떨어지는 수단이 발생한 것이다.

흑 211로는 ’참고도’의 흑 1로 후퇴했으면 아무 수도 없었다. 그런 다음 31까지 끝내기를 해보면 흑 반집 유리의 결과다. 반집은 뒤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흑에 부가 있었던 것이다.

김희관 5단, 어이없고 분한 마음에 흑 217로 두어 패로 버텨봤으나 반집승부에서 꽃놀이 패가 벌어졌으니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어이없는 종국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유재형·윤준상 등 차세대 프로기사들 승단

유재형과 윤준상 등 차세대 국내 프로 바둑 기사들이 대거 승단했다. 한국기원은 18일 “한국바둑리그 예선전과 한국물가정보 예선전 등에서 승단 요건을 갖춘 6명이 승단했다”고 밝혔다.

유재형 7단은 8단으로 한 계단 올랐고, 지난해 국수전 우승과 왕위전 준우승을 차지했던 윤준상 6단은 7단으로 승단했다. 윤준상 6단은 1년 동안 3계단 승단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성전 결승에 올라 있는 백홍석 5단도 6단으로 승단했다.

이밖에 박승철 5단은 6단, 김진우 3단은 4단, 김석흥 3단은 4단으로 각각 승단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